

전남도, 구례 화엄·영암 독천 ‘남도음식거리’ 선정

자연밥상 음식·독천낙지거리 2곳
10억 지원… 대표 미식 관광지 조성

전라남도가 구례 화엄 자연밥상 음식거리와 영암 기품 독천낙지거리를 ‘남도음식거리’로 추가 선정해 명품화에 나선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은 지역 고유의 맛과 멋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전남을 대표하는 미식 관광지로 발돋움시키려는 전략이다.

2016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남도음식을 중심으로 거리 조성과 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구례 화엄 자연밥상 음식거리는 지리산 자락인 마산면 화엄사 입구 일원에 위치하며, 산채정식과 버섯



전남도가 지역특화 남도음식거리 조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현장 평가를 통해 구례, 영암 2곳을 남도음식거리로 추가 선정했다.

전남도 제공

전골 등을 대표 메뉴로 하는 음식점 16곳이 운영 중이다. 지리산의 청정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밥상으로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구례군은 인근의 지리산 역사문화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반야원 플라타너스

등과 연계한 콘텐츠를 마련하는 한편, 반달가슴곰 조형물과 자연송이버섯 상징물 등 생태와 특산물을 활용한 공간 디자인을 통해 ‘구례만의 음식거리’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암 기품 독천낙지거리는 학산면 독천 5일시장 인근에 조성되며, 갈낙탕과 낙지 초무침 등 낙지와 한우를 접목한 특색 있는 요리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이미 입소문이 나 있는 곳이다.

영암군은 음식거리 방문객을 위한 보행로 정비, 주차 공간 확보,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낙지 요리를 개발해 전남 낙지요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두 곳의 음식거리에 개소당 총 10억원(도비 5억원·군비 5억원)을 투입해 상징물 설치, 간판 개선, 보행로 및

주차장 정비 등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2개 시군의 특색 있는 남도음식을 브랜드화해 남도의 맛과 멋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라며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활성화로 미식 관광지로의 위상을 높ی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까지 목포 평화광장 해물거리, 여수 해물삼합, 순천 우장국밥, 나주 흥여거리, 광양 불고기와 횃집, 보성 벌고 꼬막, 장흥 키조개, 완도 전복, 신안 섬뽕낙지 등 17개 시군 19곳을 조성했으며, 함평과 진도 지역에도 음식거리가 조성 중이다. 음식거리와 대표 음식점 정보는 남도음식명가누리집(www.남도음식명가.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 기자

영암군, 군민 안전 최우선 폭염 총력 대응

전라남도 영암군이 폭염으로 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총력 대응에 나섰다.

8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영암군민 안전이 최우선’을 구호로 ‘폭염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부서별 종합 대책 추진 상황, 폭염경보 발령 비상 대응 체계 등을 점검 했다.

긴급회의에서는 영암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서별 실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점검회의 후 영암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매일 협업부서와 읍·면 25명의 직원이 비상근

무하며 폭염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대응체계에 들어갔다.

아울러 영암군민이 폭염 위험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시로 마을방송과 안전안내문자를 보내는 등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홀몸 어르신, 거동 불편자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매일 1회 이상 안부 살피기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무더위쉼터 327개소 운영 △그늘막 44개소 상시 관리 △자율방재단 고령 농업인 예방 강화 등 총합한 안전망 가동으로 영암군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암=한교진 기자

영암군, 대붕감 낙과 피해 재해 인정 요청

904농가 809.5ha 재배 규모로 대붕감 주산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전라남도 영암군이 이상고온 등으로 추정되는 갑낙과 피해에 대응하는 긴급조치에 나섰다.

8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영암군은 금정면 부월·와운기동마을 등 대붕감 농가의 낙과 피해 신고를 받았다.

금정면 500여 피해농가의 400ha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낙과율이 약 85%임을 확인했다.

이번 대붕감 낙과의 원인으로 이상고온과 일교차 등 급격한 온도변화 때문인 것으로 영암군은 예상하고 있다.

올해 영암 대붕감은 5월25일 전후 수정이 이뤄졌고 그 이후 1주일 뒤부터 낙과가 시작됐다.

여기에 6월5일부터 7일까지 10~30도에 이르는 큰 일교차, 같은 달 13~21일의

총 164.5mm로 이어진 비가 뿌리 기능 저하 및 호흡 불량, 수분 스트레스 등을 유발해 낙과가 심화된 것으로 영암군은 파악하고 있다.

농가 피해를 접수한 영암군은 지난 4일 전남도를 통해 산림청에 재해를 보고하고 재해인정을 요구했다.

영암군의 요청에 국립산림과학기술원은 이번 주 피해를 조사할 기술인력을 낙과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번 낙과 피해가 재해로 인정받을 경우 영암군은 산림청에 대붕감 농가 농약대, 대출금 이자감면 등 직·간접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농협에도 농작물재해보험 현장조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금정면 이외, 피해 신고를 접수한 영암읍·덕진면·신북면의 대붕감 50농가 100ha의 피해조사에도 들어간다.

영암=한교진 기자

영암몰 ‘한우농가 氣 살리기’ 25% 할인전

전라남도 영암군이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고품질 한우를 2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영암몰 7월 한우농가 氣(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8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 가격에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영암축협은 1++ 등급 등심·안심·채갈

살 300g 단품 등 17개 품목을 할인 가격에 내놓는다.

삼호명품관은 1++ 채갈등심 300g 등 3개 품목을 소비자들을 위해 영암몰에 내놓는다.

할인 기간 영암몰은 △수요일·금요일 특가 △신규 가입 이벤트 △리뷰 이벤트 등 풍성한 혜택 제공 판촉 행사도 추가 제공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8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일원에서 열린 북부복지타운 기공식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시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 북부복지타운 ‘첫 삽’… 내년 준공 목표

전라남도 순천시는 8일 서면 선평리 718번지 일원에서 ‘북부복지타운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지역 원로단체 및 시민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해 첫 삽을 함께 뚫다. 시책 홍보영상 상영, 축하 공연, 시삽 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이 진행됐으며, 순천시는 흑서기 대비 차양막과 음수대 설치, 응급요원 배치 등 시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

했다.

북부복지타운은 어르신 여가와 건강관리, 치매요양까지 아우르는 복합복지시설로, 총공사비 214억원을 투입해 공립노인 쉼터(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348㎡)와 북부복지관(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565㎡)으로 조성된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립노인쉼터는 장기(92인)·단기(20인) 요양시설을 갖춰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된다.

북부복지관은 동시 400명 수용 규모의 여가·복지 프로그램 공간으로,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역 중심 복지시설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순천 북부권에 어르신 돌봄과 여가, 건강이 어우러진 복지 인프라가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시민 모두가 따뜻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흥 팔영산 만경암 항일 의병 전적’ 문화유산 지정 예고

고흥군은 ‘만경암 항일 의병 전적’이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문화유산 지정 예고는 전남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얼이 담긴 항일독립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했던 항일독립유산 문화유산지정 사업의 일환이다.

‘만경암 항일 의병 전적’은 고흥의 대표 명산인 팔영산 기슭 흔들바위 근처에 있는 능가사의 산내 암자 터다. 1909년 한말 전남지역 의병 항쟁의 후반부 저항지로서 전투 상황이 문헌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암자 터는 지형적 특성과 방어적 입지 조건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능가사의 주도로 진행되는 만경암 항일 의병 순국선열 합동 위령제는 독립운동 정신과 지역



고흥군 팔영산 만경암 항일 의병 전적.

고흥군 제공

역사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전국 각지에서 항일의병이 봉기하는 가운데, 고흥 지역에서도 팔영산을 중심으로 의병들이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당시 고흥에서 활동하던 신성구 의병대장은 약 120명의 의병부대를 조직해 항일 활동을 이어갔으며 이들은 만경암에 주둔했다.

1909년 7월7일 오후 6시 이들의 위치를 파악한 일본군 토벌대가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격전이 벌어졌으며 전투는 다음 날인 8일 오후 8시까지 약 26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 전투로 16명의 의병이 전사했으며 만경암 일대는 고흥 항일의병의 치열한 투쟁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소로 남게 됐다.

이번 고흥 만경암 항일 의병 전적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그동안 근대유산으로서 항일의병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내외 자료 조사, 구술 기록 수집, 전문가 협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항일의병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